

침례교, 다음세대·목회자 복지·침신대·개척교회 등에 집중

제115차 총회 전국 지방회장 간담회 갖고 공약·정책 공유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 기침)가 10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115차 총회 전국 지방회장 간담회를 갖고 교단 및 신학교에 대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 최인수 목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115차 총회가 지방회와 함께 ‘희망과 변화’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제 총회는 교단의 근간인 지방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섬기는 총회로 변화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총회장은 “각 지방회의 현실과 사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회의 정책과 지원이 현장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망과 변화’의 비전은 결국 지방회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총무인 김일업 목사는 “지방회 워크숍은 2026년 1월 초에 예정되어 있기에 제115차 총회 주요 사업과 공약들을 지방회 전체가 공감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회와 개교회가 동역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크게 △다음세대·MKPK(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분과 △목회자 복지 분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분과 △개척교회 미래목회 지원분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5차 총회 전국 지방회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지방회 강화를 위한 규정 및 정관 수개정 분과에서 이번 총회의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전하고 참석들과의 질응-응답을 갖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다음세대·MKPK

먼저 다음세대·MKPK 분과에서 발표한 청소년부장 임 무 목사에 따르면 총회는 다음세대를 위해 △청년연구소 설립 △다음세대 캠프 지원 △MKPK 여학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다음세대 청년 사역의 현장을 분석하고, 사역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역계획은 △다음세대 사역자 컨퍼런스 개최 △침례교 다음세대 백서 발간 △다음세대의 필요에 응답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캠프 설계 및 개발이다.

이어 총회는 다음세대 캠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는 캠프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개 교회와 지방회,

그리고 지방회 연합을 지원해 다음세대 부흥을 일으키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여름겨울을 캠프 지원 모델을 제공하고 미자립교회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끝으로 총회는 ‘인생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목회자 자녀(MKPK) 여학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들을 신앙·학업비전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 침례교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 여름방학 기간, 2주 과정으로 성경, 영어, IT, 악기, 심리상담에 대한 함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회자 복지

이어 군경부장 이길연 목사가 발표한 목회자 복지 분과에서 총회는 목회자의 생활 안정과 그들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목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타인23 운영①건강검진 지원 ②재정법률 상담 ③위기상황상담 지원) △국민연금 미 가입 목회자 가입 지원운동 추진 △긴급생계대출자금 지원 △총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목회자 복지제도 로드맵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분과에서 발표한 교육부장 윤종기 목사에 따르면 총회는 지방회 및 개 교회 등 교단의 역량을 모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와의 적극 소통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인증평가를 위한 학교와 상시 소통 △입학생 유치에 적극 동참 및 신입생·재학생 장학금 보급 △수도권대학원대학교 로드맵 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개척교회 지원



간담회 최인수 총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김일업 총무(왼쪽에서 네 번째)를 비롯한 총회 각 부서장들이 기자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아울러 개척교회 미래목회 지원 분야는 공보부장 박진웅 목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미래 세대를 품는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대상태와 현장에 맞도록 규약과 정관을 개정하고 △미래교회 목회 세미나 및 11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정 및 정관 수개정

끝으로 지방회 강화를 위한 규정 및 정관 수개정 분과에선 평신도부장 김상수 목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는 지방회 중심 행정 전환을 위한 공청회 및 규약위원회와 정기연구모임 등을 갖고 정기총회에 상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총회의 이 같은 정책과 비전을 위해 합심기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세대·MKPK를 위해 윤화수 목사(중서지방회장), 목회자 복지를 위해 임길수

목사(가은지방회장),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 김요셉 목사(전남지방회장), 지방회 강화와 미래목회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이보혁 목사(서울한강지방회)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총무 김일업 목사가 광고한 뒤 동남지방회 김중근 목사의 축도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최인수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의 각 부서장들이 제115차 총회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총무 김일업 목사는 “총회 공약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뿐만 아니라 총회 각 기관들과 지방회 및 개 교회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교단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각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이스라엘관광청, 2025 목회자 성지세미나 개최

3년 만에 세미나 재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지순례 관련 최신 정보와 새로운 기회 제공

이스라엘관광청이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5 목회자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170여 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8개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5개의 항공사, 그리고 국내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지순례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이번 세미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갈등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최된 것이다. 세미나의 주제는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길’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기다려온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현지 성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성지순례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환영사를 전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라파엘 하르파스 대사는 “이스라엘 대사로 부임한 지 15개월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최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그 결과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라파엘 하르파스 대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적합 노선 재개소식도 전하며,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여행 편

의를 더욱 증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전한 관광청 조유나 소장은 “팬데믹 이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많은 변화를 겪고 회복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체험을 통해 영성 체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지순례 사이트가 새롭게 복구되고 개장되었다.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독교 공동체 간의 친선과 연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스라엘정부관광부의 노가 셰르 그레코 종교국장은 이스라엘 현지의 최신 성지 소식과 더불어 예정된 종교 행사 및 축제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신앙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협력 프로그램과 교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두 번째 강연은 터치바이블 선교회 대표이자 한국 IFCI 펠로우십 이사인 김진산 목사가 진행했다. 김 목사는 ‘성경의 현장, 이스라엘에서 교회의 뿌리를 찾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영적 경험일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성지순례의 진정성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장 외부에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들이 마련한 상담 부스가 있어, 참석자들이 각자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지순례 여행 상품을 비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교회 관계자들은 성지순례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향후 성지순례를 떠날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다.

한편, 이스라엘관광청 서울사무소는 이스라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를 한국에 알리며, 다양한 관광지와 성지순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무소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기독교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지순례의 감동과 지중해의 낭만을 전하고자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2025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예술제 성황리 개최 >> 7면

한교총, '2025 국제
다문화 합창대회' 개최 >> 23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